

# 광주·전남 1분기 가계대출 급증...1조원 돌파

### 광주 5554억·전남 4522억...전년동기비 287% 올라 광주 주택담보대출 25.8배 '경증'...증가율 전국 1위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빚투' 영향 등으로 광주·전남 올 1분기 신규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지역 신규 가계대출은 광주 5554억원·전남 4522억원 등 1조766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가계대출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08년 1분기(1299억원)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2601억원)의 3.9배(287.4% ↑) 수준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 간 지역 1분기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2017년 2843억원, 2018년 3334억원, 2019년 1539억원, 지난해 2601억원 등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올해처럼 급증하지는 않았다.

광주·전남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두 부문 모두 크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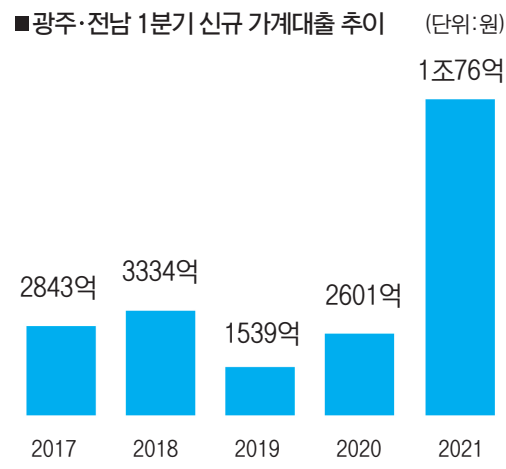
1분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광주는 25.8배, 전남은 2.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전년 비중(24.0%)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폭(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1위, 전남 6위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광주 1241억원·전남 2690억원 등 39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두 부문 모두 1분기 비교해서는 올해가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올 들어서도 신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와 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영끌',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3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예금은행 70조4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6조3000억원 등 116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달 누적 잔액은 115조7800억원으로 한 달 새

9200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 114조2658억원과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400억원이 늘었다. 한달 평균 빛이 8000억원씩 붙은 셈이다.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예금)은 예금은행 56조31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은 86조8400억원 등 143조32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계대출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666조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작년 4분기 말(1631조5000억원)보다 34조6000억원 또 늘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은 1분기에만 20조4000억원이 붙었다. 증가폭이 작년 4분기(20조2000억원)와 비슷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도 1분기에 14조2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직전 분기(25조5000억원)보다 11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은행권의 적극적 대출 관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68.43 (-2.89)
↑ 코스닥	966.06 (+3.99)
↑ 금리(국고채 3년)	1.161 (+0.019)
↓ 환율(USD)	1116.90 (-5.10)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참여 주관기관 모집

###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공간이다.

현재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가 구축돼 있으며, 광주·전남·제주 등 호남권에는 전문랩 2개와 일반랩 20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전국에 28곳을 신규 구축할 계획으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랩 중심 지원체제로 개편한다. 구축 규모를 작년 대비 2배 늘려 8개로 확대,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 민간협업형 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적용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문화 확산과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10곳을 신규 구축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골프장 '코로나 특수'

### 광주·전남 등 호남권 지난해 5550억 매출...전년비 20.8% 늘어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광주 1개·전남 40개를 포함한 호남권 골프장 매출액이 5500억원을 넘겼다.

2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 회원제·대중골프장 매출액 합계액(캐디피 제외)은 5550억원으로, 지난해(4593억원)보다 20.8%(957억원) 급증했다.

5년 전인 지난 2015년 매출액(3650억원)에 비해서는 52.1%(1900억원) 뛴 금액이다.

반면 골프장 1개소당 15~74세 골프가능인구는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줄어들었다. 한국레저산업

연구소는 15~74세 주민등록인구를 18홀 환산 골프장 수로 나눠 골프가능인구를 산출했다.

지난해 기준 호남권 골프장 1개소당 골프가능인구는 5만4400명으로, 1년 전(5만4800명)보다 0.7%(-400명) 감소했다.

최근 6년 간 호남권 골프가능인구는 6만1900명(2015년)→6만800명(2016년)→5만9900명(2017년)→5만7100명(2018년)→5만4800명(2019년)→5만4400명(지나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남권 골프인구는 2015년에 비해

7500명(-12.2%)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 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18.3% 증가하면서 7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는 입장료와 카트리, 식음료, 캐디피 등이 포함됐다.

서천범 소장은 "올해도 골프장 이용료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이용객수가 증가하면서 골프장산업 시장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며 "다만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집단면역이 생기면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내 골프장산업의 활황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0만원 출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광주시 서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대출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 총 18억원 규모 대출지원을 펼친다.

광주은행과 광주시 서구,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특례보증대출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총 대출 규모는 18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대상은 광주시 서구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제조업·건설

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의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여야 한다.

광주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특별 우대할 방침이다. 대출 취급 후 1년 동안 서구가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광주은행은 올해 광주시 동구, 북구, 광산구에 각 5000만원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해왔다.

이춘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뤘어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6일 이춘우(왼쪽) 광주은행 부행장이 서대석(가운데) 서구청장,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협약'을 맺고 광주은행의 5000만원 특별 출연을 약속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찾아가는 보증상담 창구

### 광주신보, 매달 3곳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거점상권별로 '찾아가는 현장 보증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보증상담 창구' 주요 상담 대상은 1인 사업자와 디지털 소외 계층 등이다. 생업이 바빠 사업장을 비울 수 없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자 등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신보는 거점별 대형상권과 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매달 3곳에서 현장 창구를 운영한다.

이달에는 10일 동구 대인시장을 시작으로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산지회, 서구 양동시장 등에서 현장 보증상담창구를 진행했다. 다음달에는 남구와 북구 소재 거점상권과 업종별 협회 등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합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